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人性命 구조 속에서의 心慾論

이준희 · 이의주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in the Quaternary Paradigm of Heaven-Human-Nature-Course within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性命論)』

Jun-Hee Lee, Bui-Ju Lee, Byung-Hee Koh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general overview of the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and the relevant theories on cultivation mentioned in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性命論)』.

2. Methods

The theories concerning the covetous desire introduced in Dong-Mu's manuscripts, including 『Gyukchigo 格致藁』, 『Yougocho (遺稿抄)』, 『Dongmuyougo (東武遺稿)』 and 『Jaejungsinpyun (濟衆新編)』,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and the relevant theories on self-cultivation were studied within the context of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性命論)』.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Among the four covetous desires (selfishness (私心), indiscretion (放心), indolence(逸心), acquisitiveness (慾心)), selfishness and acquisitiveness are the interpersonal components that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whereas indiscretion and indolence are the intra-personal or self-concerned components that deal with the internal desires within the individual.
- 2) In the early concepts on the quaternary explaining the perspective on the human being as introduced in Dongmu's earlier manuscripts, the four covetous desires are thought of as the most important etiological components, that are also intimately related to the theories of self-cultivation.
- 3) Among the concepts introduced in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性命論)』, viciousness (邪心) and negligence (怠心) are primary, intra-personal (self-concerned) desires that are henceforth matched to indiscretion and indolence, respectively, while selfishness (arrogance, assertiveness, indiscrimination and exaggeration (驕矜伐夸)) and acquisitiveness (violation, extravagance, slothfulness and stealthiness(奪侈懶竊)) are secondary, interpersonal desires.
- 4) 'Preserving the mind (存其心)' and 'rectifying the body (修其身)' are methods of overcoming viciousness (indiscretion) and negligence (indolence), the intrapersonal desires, while 'nurturing the nature (養其性)' and 'propping the course (立其命)' are methods of eliminating selfishness and acquisitiveness, the interpersonal desires, which ultimately each leads to the completion of Nature (性) and Conduct/Course (命).

Key Words: Dong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性命論), Covetous Desire (心慾) Medicine(SCM)

I. 緒論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人趨心慾’을 제시하면서 智禮義仁의 性理를 버리고 私放逸慾의 心慾에 빠진 자들을 『孟子』의 四夫의 개념¹⁾과 연결시켜, 鄙人, 薄人, 貪人, 懦人으로 규정하고 있다.²⁾ 여기서의 私放逸慾 心慾 개념은 東武의 『東醫壽世保元』 이전 저작에서부터 그의 인간관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智禮義仁, 私放逸慾 및 鄙薄貪懦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로 『格致藁』 「獨行篇」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졌다. 智禮義仁과 鄙薄貪懦의 연계에 있어 그 기본적인 구조는 장 등의 연구³⁾에서, 그 이론적 연원에 대해서는 김 등의 연구⁴⁾에서, 智禮義仁과 鄙薄貪懦者 연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고찰은 윤 등의 연구⁵⁾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이론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私放逸慾의 心慾에 대한 연구와 智禮義仁 및 鄙薄貪懦와의 상관관계 연구도 일천한 실정이다. 心慾과 性理의 대립구조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東武의 心性觀은 손 등의 연구⁶⁾ 및 그 이후 연구⁷⁾에서 일부 제시되었다. 그러나 私放逸慾 心慾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東武의 전체 이론체계 속에서의 私放逸慾 心慾의 위치 및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설명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私放逸慾 心慾은 東武 心性論 및 人間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人間觀 속에서 心慾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東武 人間觀의 최종본인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天人性命 사원구조 속에서 私放逸慾 心慾의 위치 및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고, 더 나아가 東武 修養論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東武의 다른 저작 특히 天人性命 四元構造 확립 이전의 초기 사고

속에서 心慾의 위치 및 의미를 검토하였고, 이를 이후 논의의 이론적 도구로 삼았다.

II. 研究方法

1. 私放逸慾 心慾의 의미 및 정의를 고찰해보고자 『格致藁』⁸⁾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2. 동무의 인간관을 설명하고 있는 天人性命 사원구조의 초기 생각 속에서 心慾의 위치 및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문헌은 『格致藁』 「獨行篇」⁸⁾,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⁹⁾, 『遺稿抄』 (또는 『東武遺稿』 「東武遺藁」 「言行」)⁹⁾, 『東武遺稿』 「東武遺藁」 「勝肱」 및 『濟衆新編』 「知行論」⁹⁾ 등이었다.
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¹⁰⁾에서 제시되는 天人性命 사원구조 속에서 心慾의 위치 및 의미를 검토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私放逸慾 心慾

1) 心慾의 정의

私放逸慾 心慾의 개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格致藁』 여러 부분에서 정의되어지고 있다. (Table 1) 『格致藁』 「儒略事物」에서는 私放逸慾의 心慾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私心으로 배움(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일(事)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일(事)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고, 慾心으로 분별함(辨)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사물(物)을 보면 탐할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사물(物)은 가법계 여긴다고 하였다. 放心으로 질문함(問)에 막힌 자는 자신의 한 몸(一身)은 우려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마음만을 쾌족하게 하고, 逸心으로 사려함(思)이 없는 자는 자신의 한 마음(一心)은 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버리고 몸만을 편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私心은 ‘자기가 얻은 것을 사사롭게

1) 『孟子』 「盡心章下」 孟子曰：『聖人，百世之師也，伯夷，柳下惠是也。故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聞柳下惠之風者，薄夫敦，鄙夫寬。奮乎百世之上，百世之下，聞者莫不興起也。非聖人而能若是乎，而況於親炙之者乎？』

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3) 『格致藁』 「儒略事物」 2-5 私心而昧學者 視天下事忽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而橫行則快於

Table 1. The Definition of Covetous Desire

	私	放	逸	慾
『儒略 事物』	視天下事忽而 視自己事重也	思一身無慮而橫行則 快於心也	思一心無爲而自棄則 便於身也	視天下物貪 而 視自己物屑也
『儒略 事物』	私己之得也	放縱之好也	安逸之願也	慾人之有也
『儒略 觀仁』	私於己	放於大	逸於廣	慾於人
『反誠箴 良箴』	奪人之務	妬人之賢	嫉人之能	圖人之物

하는 것(私己之得)'으로, 慾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내는 것(慾人之有)'으로, 放心은 '방종함을 좋아하는 것(放縱之好)', 逸心은 '안일함을 원하는 것(安逸之願)'으로 요약하였다⁴⁾. 『格致藁』 「儒略 觀仁」에서는 私心을 '자신(己)을 사사롭게 하는 것'으로, 慾心은 '다른 사람에게서 욕심내는 것'으로, 放心은 '太한 것에서 放縱함'으로, 逸心은 '廣한 것에서 偷逸함'으로 정의한다⁵⁾.

『格致藁』 「反誠箴 良箴」에서는 我者와 他者와의 관계 속에서 私放逸慾의 心慾을 정의하였다. 私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奪人之務)', 慾心은 '다른 사람의 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圖人之物)', 放心은 '다른 사람의 어짐을 妬忌하는 것(妬人之賢)', 逸心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嫉視하는 것(嫉人之能)'으로 정의한다⁷⁾. 여기서 放心은 '放於心'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賢者를 시기하는 것이며, 逸心은 '逸於身'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能者를 질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私心과 慾心은 事物차원의 心慾이고, 放心과 逸心은 心身차원의 心慾임을 알 수 있다. 즉 私心과 慾心은 我者와 他者간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지는 것이며, 放心과 逸心은 我者 내에서

설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己物觀의 입장에서 구분하여 보면, 私心과 慾心은 對衆的 차원의 心慾이라 할 수 있고, 放心과 逸心은 守己의 차원의 心慾으로 볼 수 있다⁸⁾. 私放逸慾의 개별적 정의를 요약하면, 私心은 事차원에서 자신의 事만을 중시하여 사사롭게 여기는 마음이며, 慾心은 物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物을 탐하는 마음이다. 放心은 心차원에서 마음만을 쾌족하게 하여 방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逸心은 身차원에서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2) 心慾과 不善

『格致藁』 「儒略 事物」에서는 私放逸慾의 心慾으로부터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위윤리와 대립하는 齷侈懶詐라는 개별적 차원의 不善함이 나온다고 하였고⁹⁾¹⁰⁾, 더 나아가 智禮義仁이라는 보편적

8) 여기서 '守己의'와 '對衆的'이라 표현한 것은 東武의 己物觀에 입각하여 논자가 인간의 두 가지 행위 및 존재양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東武는 『格致藁』 「儒略 天下索我」에서 '守獨'과 '接物', 『格致藁』 「反誠箴 乾箴下截」에서 '自己獨得'과 '與人相接' 등으로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존재 및 행위 양식을 대내적인 입장(己 내부)과 대외적인 입장(己와 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논자는 이에 착안하여 대내적인 것을 '守己의'으로, 대외적인 것을 '對衆的'으로 표현하였다.

9) 『格致藁』 「儒略 事物」 4-2 不獨齷之不善 出於私也 雖誠之善 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 出於欲也 雖勤之善 亦出於慾也 不獨侈之不善 出於放也 雖能之善 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 出於逸也 雖慧之善 亦出於逸也

10) 『格致藁』 「儒略 事物」 4-2에서는 齷侈懶詐의 不善함뿐만 아니라, 誠慧能勤의 善함 또한 私放逸慾의 心慾에서 나온다고 하여, 善함과 不善함이 모두 心慾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중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心慾을 'covetous desire'로 볼 것인지, 아니면 'want'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東武는 그의 저작에서 '欲(want)'와 '慾(covetous desire)'을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했고, 이는 그의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두드러

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 而自棄則便於身也

4) 『格致藁』 「儒略 事物」 4-1 民有私己之得也 所以畜也 民有慾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以懶也

5) 『格致藁』 「儒略 觀仁」 1-4 慾於人 無不誠者 眞誠難知也 私於己 無不動者 眞勤難知也 放於大 無不好競功者 眞能難知也 逸於廣 無不好爲人師者 眞慧難知也

6) 大와 廣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적 배경인 天下의 속성을 나타낸다.

7) 『格致藁』 「反誠箴 良箴」 5-12 圖人之物曰慾 嫉人之能曰逸 妬人之賢曰放 奪人之務曰私

가치와 대립하는 奪侈懶竊이라는 對衆의 차원의不善함이 나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私放逸慾의 일신의 재앙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¹¹⁾. 『格致藁』 「儒略 我止」에서는 개별적 존재 및 행위양식인 決遇行止함에 있어 그 마땅함을 잃는다면 결국 私放逸慾의 心慾을 자재하게 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¹²⁾. 『格致藁』 「儒略 志貌」에서는 事物에 대한 개별적 행위주체인 意慮膽志의不善한 요소인 ‘竊妬欺奪’이 私放逸慾의 心慾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고¹³⁾, 事物에 대한 지각 및 인식과정인 聽視言貌의不善한 요소인 ‘急豫僂狂’이 私放逸慾의 對衆의 心慾인 佞僞浪恣로부터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格致藁』 「儒略 四戒」에서는 개별적 행위 및 존재의 주체인 口心身力을 純仁賢實하지 못하면 私放逸慾의 心慾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다¹⁴⁾. 『格致藁』 「反誠箴 良箴」에서는 인간사회의 천태만상을 和同, 聚團, 局方, 閭巷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지게 나타난다. 특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에서 ‘人趨欲心’으로 표기한 것을 한 것(물론, 이는 誤記의 소지가 있음)을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趨心慾’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에 논자는 본 논고에서 私放逸慾의 心慾을 ‘covetous desire’의 개념으로 한정하였고, 『格致藁 儒略 事物』 4-2도 誠慧能勤이 私放逸慾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다가 보다는 心慾의 억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또는 私放逸慾 心慾조절의 방법론으로서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위유리가 제시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 11) 『格致藁』 「儒略 事物」 5-5 是故 私最是善作擘也 博學治平 則莫之擘也 慾最是善作擘也 明辨修齊 則莫之擘也 放最是善作擘也 審問格致 則莫之擘也 逸最是善作擘也 慎思誠正 則莫之擘也
- 12) 『格致藁』 「儒略 我止」 2-6 不止以止 中藏慾心 當決不決 中藏私心 意勢弘遠 萬倍得也 志量確深 萬倍利也
2-7 賴人僂倖 內懷放心 意吾當行 內懷逸心 身先當行 天下助也 心絕僂倖 四方佑也
- 13) 『格致藁』 「儒略 志貌」 2-3 故曰志之不善 非志才之罪也 慾之罪也 膽之不善 非膽才之罪也 逸之罪也 慮之不善 非慮才之罪也 放之罪也 意之不善 非意才之罪也 私之罪也
2-6 故曰貌之不善 非貌才之罪也 恣之罪也 言之不善 非言才之罪也 浪之罪也 視之不善 非視才之罪也 僂之罪也 聽之不善 非聽才之罪也 佞之罪也
- 14) 『格致藁』 「儒略 四戒」 2-3 純口純心 純口有術 純口不得 反於私也 仁心仁心 仁心有術 仁心不得 反於放也 賢身賢身 賢身有術 賢身不得 反於逸也 實力實力 實力有術 實力不得 反於慾也

서 和同, 聚團, 局方, 閭巷에서의 병폐는 私放逸慾의 心慾에서 기인함을 설명하였다¹⁵⁾.

이상에서 私放逸慾의 心慾은 守己的 차원이든, 對衆的 차원이든 不善함을 초래하는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心慾과 智禮義仁

『格致藁』 「儒略 天下索我」에서는 인간의 존재 및 행위양식과 그에 따르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往來出入을 설정하였는데, 往來出入하는 가운데 쉽게 私放佚(逸)慾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¹⁶⁾. 『格致藁』 「反誠箴 乾箴」에서는 智禮義仁이 往臨立來하면 天下가 不哀, 不怒, 皆喜, 皆樂한다고 하여, 私放逸慾의 心慾은 性理로서의 智禮義仁과 대립적 구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¹⁷⁾.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孟子』의 四夫와 私放逸慾의 心慾을 연계시키고 있다¹⁸⁾. 鄙者의 慾心은 만족함이 없고, 薄者의 私心은 다함이 없으며, 貪者의 放心은 끝이 없고, 懦者의 佚心은 그침이 없다고 하였다¹⁹⁾.

이상에서 私放逸慾의 心慾은 智禮義仁의 性理와 대립하여 이를 가리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格致藁』 「反誠箴 良箴」 5-13 閭巷之疾在慾 天下之愚者 皆罹此疾 局方之疾在逸 天下之駭者 皆罹此疾 聚團之疾在放 天下之癡者 皆罹此疾 和同之疾在私 天下之蒙者 皆罹此疾
5-14 愚人之慾 滿於閭巷 天下之愚 其數亦如其慾 駭人之逸 滿於局方 天下之駭 其數亦如其逸 癡人之放 滿於聚團 天下之癡 其數亦如其放 蒙人之私 滿於和同 天下之蒙 其數亦如其私
- 16) 『格致藁』 「儒略 天下索我」 3-1 往則易私 來則易慾 出則易放 入則易佚
- 17) 『格致藁』 「反誠箴 乾箴」 2-23 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之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
- 18) 『格致藁』 「獨行篇」 4-20 鄙者之慾心 無厭也 可鎖而不可瀆也 薄者之私心 無窮也 可遠而不可遜也 貪者之放心 無極也 可停而不可邇也 懦者之佚心 無歇也 可備而不可與也
- 19) 이는 같은 『格致藁』 「獨行篇」과 『格致藁』 「儒略」,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으로 내용이 발전하면서 四夫와 四不正心の 연계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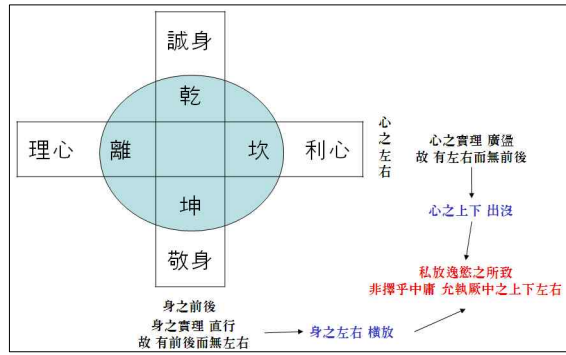


Fig. 1. Covetous desire in 『Gyukchigo(格致藁)』 「Banseungjam(反誠箴) Sonjam(巽箴)」

4) 心慾과 誠敬-理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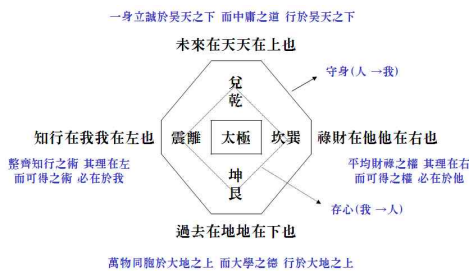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는 「反誠箴」 전체를 요약하며 인간의 존재 및 행위 양식을 상하좌우의 공간적 언어로 설명하였다. 『中庸』의 道는 큰 하늘 아래에서(昊天之下)에서, 『大學』의 德은 넓은 땅위에서(大地之上)에서 행해진다고 하고, 未來는 天에, 過去는 地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관통하는 보편의 가치를 각각 『中庸』과 『大學』을 들어 道와 德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左右의 놓인 것은 각각 我者와 他者간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我者 내부의 문제는 知行에 있고, 他者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財祿에 있음을 제시하였다²⁰⁾.

한편 이를 兩儀의 차원에서 다시 상하좌우의 공간적 언어로 재해석하며 前後(上下)의 身과 左右의 心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어 身의 운용에 있어 나아가서는 몸을 誠하게 하여야 하고, 물러서서는 敬하게 하여야 함을 말하였고, 心의 운용에는 理와 利²¹⁾라는 양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밀하고 바

름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²⁾ 誠과 敬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고, 그 보편적 가치의 흐름 속에서 있는 인간이 갖추어 나가야 할 기본적인 근원적 가치라 할 수 있다. 理와 利는 보편적 가치의 흐름 속에 我者와 他者간의 끊임없는 관계형성 속에서 설정되는 일반적 가치로 볼 수 있는데, 이 理와 利는 실정에 맞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身의 實理는 直行하여 前後가 있으나 左右는 없고, 心의 實理는 廣濶하여 左右는 있으나 前後는 없다고 하면서, 身이 左右로 橫放하고, 心이 上下로 出沒함은 私放逸慾으로 인한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²³⁾.

이상에서 인간의 존재 및 행위 양식을 心身의 兩儀적 차원으로 요약하고, 誠敬과 理利의 實理를 저버리는 원인을 私放逸慾의 心慾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20) 『格致藁』 「反誠箴 巽箴」



- 21) 東武에게 利는 더 이상 惡의 개념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당당히 理와 더불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다. 단 利가 실정에 맞는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하며, 利가 실정에 맞는 못함이 惡의 개념에 속한다. 이는 人欲과 같은 구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22) 『格致藁』 「反誠箴 巽箴」 9-36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 敬於坤也 理心 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 利於坎也
- 23) 『格致藁』 「反誠箴 巽箴」 9-38 身之實理 直行故 有前後而無左右 心之實理 廣濶故 有左右而無前後 若夫身之左右 橫放 心之上下 出沒 卽私放逸慾之所致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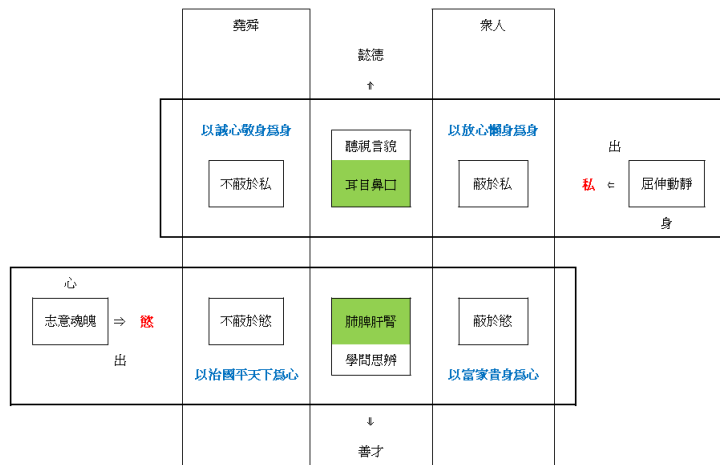


Fig. 2. Covetous desire in 『Gyukchigo(格致藁)』 「Dokheangpyun(獨行篇)」

2. 東武의 人間觀과 心慾에 대한 초보적 인식

1) 天人性命 四元構造의 초기 모델과 그 안에 내재된 心慾論

(1) 『格致藁』 「獨行篇」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衆人和 堯舜의 같음과 다름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인과 중인 모두 耳目鼻口의 聽視嗅味와 肺脾肝腎의 學問思辨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耳目鼻口가 私心에 가려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聽視言貌에 있어서의 善함과 不善함이 결정된다고 하였고, 肺脾肝腎이 慾心에 가려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學問思辨의 善함과 不善함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²⁴⁾, 私心은 屈伸動靜의 身차원에서 나오고, 慾心은 志意魂魄의 心차원에서 나온다고 하였다²⁵⁾. (Fig. 2)

이어 私心과 慾心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屈伸動靜함에 있어 ‘誠心敬身’함을 몸가짐으로 하는지, ‘放心懶身’함을 몸가짐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름이 있다고 하면서, 私心은 ‘放心懶

身’함으로써 나온다고 하였다. 志意魂魄에 있어서 ‘治國平天下’를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富家貴身’함을 마음가짐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름이 있다고 하면서, 慾心은 ‘富家貴身’하고자 함에서 나옴을 설명하고 있다²⁶⁾. 즉 私心은 ‘誠心敬身’하지 못하고 ‘放心懶身’하기 때문이고, 慾心은 ‘治國平天下’ 하려하지 못하고 ‘富家貴身’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선행원인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私心과 慾心이 발출하게 되는 心身은 兩儀의 차원의 心身으로 사료된다. 身은 我者 내부의 문제이다. 心은 我者와 他者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이다. 이는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 ‘存心之戒’를 兩儀적 차원의 心身으로 논하고 있는 것과 같다. 身의 兩用인 誠과 敬은 我者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를 心身(事心身物의 心身)으로 배속하여 放心, 懶身하지 말고 誠心, 敬身할 것으로 강조한다. 心의 兩用인 理와 利는 我者와 他者간의 설정된 가치이며 이는 실정에 맞아야 한다. 誠心敬身하지 못하고 放心懶身함은 身이 左右로 橫放함을 의미하여 身의 用인 誠과 敬이 발휘되지 못하

24) 『格致藁』 「獨行篇」 4-61-6 ..., 曰 堯舜 有耳目鼻口而衆人亦有耳目鼻口 堯舜 有肺脾肝腎 而衆人亦有肺脾肝腎, ..., 曰 堯舜之耳目鼻口 不蔽於私 而善於聽視言貌 衆人之耳目鼻口 蔽於私 而不善於聽視言貌 堯舜之肺脾肝腎 不蔽於慾 而善於學問思辨 衆人之肺脾肝腎 蔽於慾 而不善於學問思辨 此所以異也

25) 『格致藁』 「獨行篇」 4-61-7 ..., 曰 人之才德之所出 既聞之矣 又敢問 人之私慾之所出, ...

26) 『格致藁』 「獨行篇」 4-61-7 ..., 大人之志意魂魄 以治國平天下爲心 故其精神氣血 深遠廣大也 細人之志意魂魄 以富家貴身爲心 故其精神氣血 淺近狹小也 大人之屈伸動靜 以誠心敬身爲身 故其身首股肱 中規準繩也 細人之屈伸動靜 以放心懶身爲身 故其身首股肱 不中規準繩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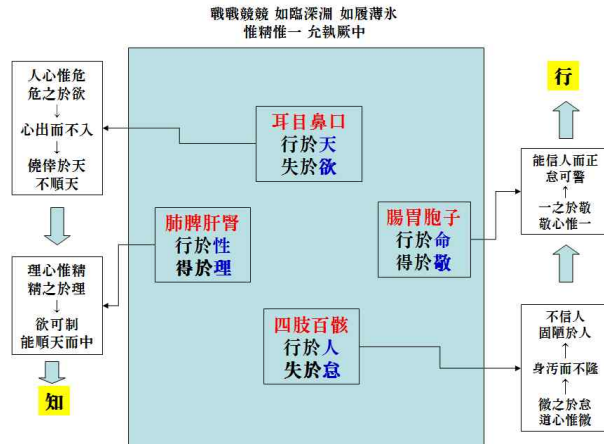


Fig. 3. Covetous desire in 『Gyukchigo(格致藁)』 『Banseoungjam(反誠箴)』 『Rijamhajeoul(離箴下截)』

기 때문이다. 治國平天下가 아닌 富家貴身을 心으로 하는 것은 心이 上下로 出沒함에 기인한 것으로 心の 用인 理와 利가 그 實理를 잃었기 때문이다.

(2)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에서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의 天人性命 사원구조와 유사한 기본구조를 제시하였다. 耳目鼻口²⁷⁾가 天에서 행하나 欲에서 잃는다고 하였고, 四肢百骸는 人에서 행하나 怠에서 잃는다고 하면서, 人心의 위태로워짐을 欲에서, 道心의 미미하여짐을 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²⁸⁾. 여기서 天과 人은 天心과 人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心身으로 설명하여, 欲은

‘마음이 나가서 들어오지 못한 것(心出而不入)’으로, 怠는 ‘몸이 더러워져 융성하지 못한 것(身污而不隆)’으로 설명한다. 이로 인해 人心의 위태로움과 道心の 미미함이 초래되고, 결국 天心을 따르지 못하고, 人心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Fig. 3)

한편, 肺脾肝腎은 性에서 행하고 理에서 얻는다고 하였고, 腸胃胞子는 命에서 행하고 敬에서 얻는다고 하였다. 欲은 理에 정밀함으로써 억제되어지고, 怠는 敬을 한결같이 함으로써 경계되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天心을 따르고 적중하게 됨을 ‘知’로, 人心을 믿고 바르게 됨을 ‘行’이라 하였다. 이상의 구도 속에서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欲과 怠를 각각 ‘깊은 연못’과 ‘얕은 얼음’에 비유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과 같이 하고, 얕은 연못을 밟는 것과 같이, 오로지 理에 정밀해야 하고 敬에 한결같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이상에서 欲은 心の 慾으로, 怠는 身의 慾으로 제시된 것으로 각각 放心과 逸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차적이고 守己의 차원의 心慾이라 할 수 있다.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에서 특이한 것은 私心과 慾心에 대한 언급은 없고, 放心과 逸心에 해당하는 欲과 怠만이 언급되어진다. 그

2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肩腰腎의 인체개략과는 다르게 耳目鼻口, 四肢百骸, 肺脾肝腎, 腸胃胞子로 설정한다. 耳目鼻口와 四肢百骸는 겉으로 들어난 해부학적 구조이고, 肺脾肝腎과 腸胃胞子는 속에 감추어진 해부학적 구조로 內外上下前後의 공간적 개념 하에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28)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 6-21,22,23,24 耳目鼻口 行於天也 四肢百骸 行於人也 肺脾肝腎 行於性也 腸胃胞子 行於命也 耳目鼻口 失於欲也 肺脾肝腎 得於理也 四肢百骸 失於怠也 腸胃胞子 得於敬也 人心惟危 危之於欲 則心出而不入也 心出而不入 則僥倖於天而不順天也 道心惟微 微之於怠 則身污而不隆也 身污而不隆 則固陋於人而不信人也 理心惟精 精之於理 則欲可制而能順天而中也 順天而中者 知也 敬心惟一 一之於敬 則怠可警而能信人而正也 信人而正者 行也

29) 艷人之欲 深淵也 置身之怠 薄水也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水 書曰 惟精惟一 允執厥中 果能 惟精惟一 自然不入深淵 不陷薄水

言行		人己	
欲之亟 → 人心惟危		利之鑿 → 道心惟微	
欲恒過度 → 言必過度, 行必不及		利恒不及 → 人必不及, 己必過度	
欲若過度 → 義必不及 (欲在義邊)		理若不及 → 利必過度 (道在利裡)	
↓		↓	
義一(惟一)		理精(惟精)	
允執厥中, 欲中利中.			
義則謹欲, 欲謹則義修 存心養性		道則廣利, 利均則道平 修身立命	
↓		↓	
言行有序, 言不可先行 行必正大		人己有序, 人不可後己 人必廣濟	
↓		↓	
一於欲義, 德修一身		精於利理, 道平天下	
↓		↓	
德修一身, 是謂樂天		道平天下, 是謂知命	

Fig. 4. Covetous desire in 『Yougocho(遺稿抄)』

리면서 欲과 怠를 理心과 敬心을 통해 극복할 것을 강조한다. 理心과 敬心은 『格致彙』 「反誠箴 巽箴」의 誠과 敬의 개념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遺稿抄』 / 『東武遺稿』 「東武遺藁」 「言行」³⁰⁾ 『遺稿抄』 또는 『東武遺稿』 「東武遺藁」의 「言行」에서는 守己의 차원과 對衆의 차원에서 각각 「言行」과 「人己」의 관계를 설정하여 그 선후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書經』 「虞書 大禹謨」의 人心 道心の 내용³¹⁾을 인용하여 守己의 차원에서는 「欲에 빠름(欲之亟)」으로 인하여 人心이 위태로워지고, 對衆의 차원에서는 「利를 천착함(利之鑿)」으로 인하여 道心이 미미해진다고 하였다. 欲은 항상 過度해지기 쉬우니 이로 인해 言이 過度해지고, 行은 不及해진다고 하였고, 또 義가 不及해진다고 하였다. 利는 항상 不及하기 쉬우니 이로 인해 人에 不及해지고, 己는 과도해진다고 하였으며, 또 理가

不及해지면, 利를 추구하는 마음은 반드시 과도해진다고 하였다. 즉 守己의 차원인 言行에 있어서는 「欲의 과도함」이, 對衆의 차원인 人己에 있어서는 「利의 과도함」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Fig. 4)

한편 言行에 있어서는 欲과 상대하여 義를 설정하였고, 人己에 있어서는 利와 상대하여 理를 설정하였는데, 「惟精惟一」을 「理精義一」이라 하여 義가 한결같고, 理가 정밀함을 얻으면 欲과 利가 중절하게 된다고 하여 그 극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²⁾. 義가 닦여지면 欲을 삼가게 되고, 欲을 삼가면 義가

30) 『東武遺稿』 내에 「東武遺藁」라는 제목으로 되있는 내용의 일부. 「東武遺藁」는 내용상 세 가지의 단편들이 구분없이 연이어져 필사된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時色」, 「言行」, 「勝脫」 등의 제목을 붙임. 이 중 「언행」은 乙未年(1895년)에 서술한 『遺稿抄』로 불린다.

31) 『書經』 「虞書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32) 『東武遺稿』 「東武遺藁」 「言行」
言行何先? 行在言先. 人己何先? 人在己先. 何以然耶? 行若正大, 言無不美, 言若獨美, 行難繼美. 人若廣濟, 己無不得, 己但獨得, 人難兼得. 欲之亟也, 人心惟危. 利之鑿也, 道心惟微. 欲恒過度, 言必過度. 利恒不及, 人必不及. 言若過度, 行必不及. 人若不及, 己必過度. 欲若過度, 義必不及. 理若不及, 利必過度. 義安欲危, 其德取安. 理精利麤, 其道取精. 惟精惟一, 理精義一, 允執厥中, 欲中利中. 欲在義邊, 相距不遠. 道在利邊, 相距不遠. 欲在義表, 義則謹欲. 道在利裡, 道則廣利. 欲修言行, 欲謹則義修. 利平人己, 利均則道平. 言行有序, 言不可先行. 人己有序, 人不可後己. 存心養性, 行必正大. 修身立命, 人必廣濟. 精於利理, 道平天下. 一於欲義, 德修一身. 道平天下, 是謂知命. 德修一身, 是謂樂天. 在昔聖人, 至情告我, 我思聖人, 遂至于今.

Table 2. The Overview of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and 'Theories on the Cultivation'

	心慾論		修養論
『格致藁 獨行篇』	私心 ← 以放心懶身爲身 慾心 ← 以富家貴身爲心	↔	以誠心敬身爲身 以治國平天下爲心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	天：欲 ← 心出而不入 人：怠 ← 身汚而不隆	↔	精之於理 一之於敬
『遺稿抄』 『東武遺稿』『東武遺藁』『言行』	言行 欲之亟 → 人心惟危 欲若過度 → 義必不及 人己 利之鑿 → 道心惟微 理若不及 → 利必過度	↔	義(一於欲義) / 存心養性 → 德修一身 理精(精於利理) / 修身立命 → 道平天下
『東武遺稿』『東武遺藁』『膀胱』	天：私心, 逸心 (天心惡私也, 命理戒逸也) 人：慾心, 放心 (人心惡慾也, 性理戒放也)	↔	天心不可以私得, 而可以無逸得也 人心不可以慾得, 而可以無放得也
『濟衆新編』『知行論』	心 放蕩 → 損知 → 愚人 身 偷逸 → 損行 → 不肖人	↔	求其放心 → 從容 → 誠 → 知人 警其逸身 → 敏強 → 敬 → 賢人

닥여져서, 言行에 차서가 있고, 말이 行에 앞설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道가 갖추어지면 利가 넓어지고, 利가 고르게 되면 道가 평등하게 되어, 人己에 차서가 있고, 人이 己 뒤에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存心養性하면 行은 반드시 正大해지고, 修身立命하면 人은 반드시 廣濟하게 된다고 하니, 存心養性은 欲을 삼가고 義를 닦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修身立命은 利를 넓혀 고르게 하고 道를 평등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Table 2)

이상을 요약하면 言行은 守己의 차원이며, 人己는 對衆의 차원의 것으로, 守己의 차원의 慾은 ‘欲之亟’이 되며, 對衆의 차원의 慾은 ‘利之鑿’이 된다. 이를 私放逸慾의 心慾과 연관시켜 보면, ‘欲之亟’은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放心, 逸心和 연계되며, ‘利之鑿’은 對衆의 차원의 心慾인 私心, 慾心和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欲之亟’은 守己의 차원의 誠과 敬에, ‘利之鑿’은 對衆의 차원의 理와 利에 부합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4) 『東武遺稿』『東武遺藁』『膀胱』

『東武遺稿』『東武遺藁』『膀胱』에서는 面目, 胸膈, 腰臍, 膀胱을 각각 事心身物로 분류하였다³³⁾. 또 事心身物을 각각 天性命人에 배속하고,

상하좌우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속하여 『東醫壽世保元』 「性命論」과 유사한 사원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Figure 5) 이어 天人性命과 私放逸慾의 心慾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즉 天心은 私心을 싫어하고, 人心은 慾心을 싫어하며, 命理는 逸心을 경계하고, 性理는 放心을 경계한다고 하였다. 또 天과 身을, 人과 心을 연계시키면서 天心-私心-逸心, 人心-慾心-放心的 구도를 제시한다. 즉 天心은 私心을 싫어하므로 一身은 天心에 있어 私心을 잊고 점차로 左로 향하니, 私心으로써 天心에 요구하지 않고, 이로 인해 身은 더욱 正大해지고 天心은 반드시 감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人心은 慾心을 싫어하므로 一心은 人心에 있어 慾心을 잊고 점차로 右로 향하니, 慾心으로써 人心에 요구하지 않고, 이로 인해 마음은 더욱 光明해지고 人心은 반드시 함께 된다고 하였다. 天心和 人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天心은 私心을

33) 『東武遺稿』『東武遺藁』『膀胱』
膀胱物也. 腰臍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天心惡私也, 人心惡慾也, 命理戒逸也, 性理戒放也.
天心惡私, 故我身忘於天, 而漸向左也. 人心惡慾, 故我心忘於人, 而漸向右也. 忘於天者, 不以私要天也. 忘於人者, 不以慾要人也. 不以私要天, 則身益正大而天必應也. 不以慾要人, 則心益光明而人必與也. 蓋天心不可以私得, 而可以無逸得也. 人心不可以慾得, 而可以無放得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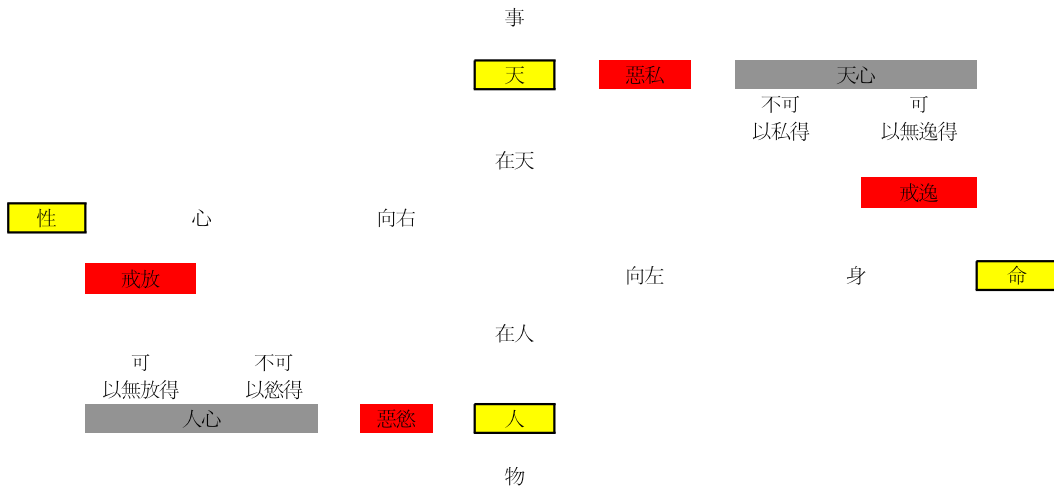


Fig. 5. Covetous desire in 『DongmuYougo(東武遺稿)』 「Banggwang(膀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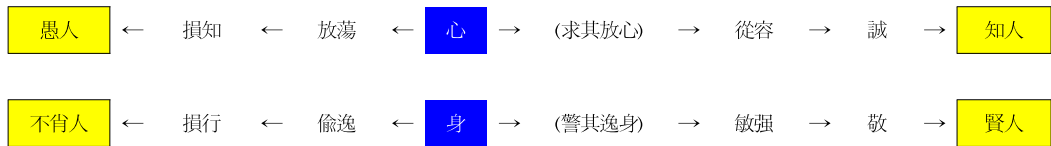


Fig. 6. Covetous desire in 『Jaejoongsinpyun(濟衆新編)』 「Jiheangron(知行論)」

가지고는 얻어질 수 없고, 逸心이 없어야만 얻을 수 있고, 人心은 慾心を 가지고는 얻어질 수 없고, 放心이 없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여, 天心은 逸心の 경계를, 人心은 慾心の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東武遺稿』 「東武遺藁」 「膀胱」의 구조 속에서는 이전의 것보다 私放逸慾의 心慾을 상당히 구체화시켜 분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性과 命의 달성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放心과 逸心, 對衆의 차원의 心慾인 私心과 慾心을 이원화시켜 분속시키고 있다.

知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心身차원의 心慾 즉 守己의 차원의 心慾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心은 放蕩해서는 안되니 放蕩하게 되면 知를 모순하게 되고, 身은 偷逸해서는 안되니 偷逸하게 되면 行을 모순하게 된다고 하였다. 學問思辨을 수양론의 기본 조목으로 제시하면서, 學問의 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心을 구하여 從容하는 것이라 하며 이를 誠이라 했다. 思辨의 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身을 경계하여 敏強하게 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를 敬이라 했다³⁵⁾. (Fig. 6)

(5) 『濟衆新編』 「知行論」

『濟衆新編』 「知行論」³⁴⁾에서는 心身 차원의

34) 丁酉年(1897년)에 지어진 것으로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 3편으로 구성. 韓斗正이 1940년 『격치고』를 발행하면서 『濟衆新編』은 『遺稿抄』와 함께 부록으로 실려있음. 『東武遺稿』에도 똑같은 제명과 편명으로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35) 『濟衆新編』 「知行論」 何以知之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也. 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 用其心於放蕩者 雖有其心與無心同也. 無心則知何從出乎. 用其身於偷逸者 雖有其身與無身同也. 無身則行何從出乎. 是故 其心放蕩者 愚人也. 其心從容者 知人也. 其身偷逸者 不肖人也. 其身敏強者 賢人也.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 從容而已 此之謂誠也. 思辨之道 無他 警其逸身 敏強而已 此之謂敬也.

이상은 守己의 차원의 논의로 知行的 주체를 心身으로 구분하고, 心차원의 慾인 放蕩함을, 身차원의 慾인 偷逸함을 경계하여만 올바른 知行이 발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각각 誠과 敬이라 제시하였다. 이는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 守己의 차원의 두 가지 운용으로 제시한 性과 敬에 연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총괄

이상에서 天人性命 四元構造의 초기 모델과 그 안에 내제된 心慾論을 고찰한 내용을 心慾論과 修養論 측면에서 총괄하면 Table 2와 같다.

(1) 心慾論

① 放心과 逸心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私心の 발생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는 放心懶身함을 身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慾心の 발생 원인을 설명하면서도 富家貴身함을 心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心身은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 身의 兩用을 誠身, 敬身, 心의 兩用을 理心, 利心으로 구분한 것과 동일한 구도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身은 守己의 차원, 心은 對衆의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에서는 天心에 있어 欲으로 인해 잃는다고 하였고, 人心에 있어 怠로 인해 잃는다고 하였다. 이는 각각 ‘心出而不入’과 ‘身汚而不隆’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欲은 放心을, 怠는 一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遺稿抄』에서는 守己의 차원과 對衆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守己의 차원에서는 言行的 선후 문제를 논하면서, ‘欲에 빠름’을 제시하는데 이는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에서의 天心을 잃는 원인인 欲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東武遺稿』 「東武遺藁」 ‘膀胱’에서는 性의 이치는 放心을 경계하고, 命의 이치는 逸心を 경계한다고 하였다. 性命의 이치가 각각 放心과 逸心の 경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濟衆新編』 「知行論」에서는 心의 放蕩함이, 身의 偷逸함이 각각 知와 行을 손상시킨다고 하여, 放心을 구하고, 逸心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동무는 그의 여러 문헌에서 각각의 개별적 의미는 다르나 개별적 차원, 守己의 차원

에서의 心慾을 心차원에서의 放心과 身차원에서의 逸心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私心과 慾心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耳目鼻口の 聽視言貌가 私心に 의해서, 肺脾肝腎의 學問思辨이 慾心に 의해 가려짐을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耳目鼻口로부터의 懿德과 肺脾肝腎으로부터의 善才가 발출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遺稿抄』에서는 守己의 차원과 對衆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對衆의 차원에서는 人己의 선후 문제를 논하면서, ‘利에 천착함’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 제시하고 있는 利와 理의 설정에서 어긋남을 논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며, 對衆의 차원의 心慾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東武遺稿』 「東武遺藁」 ‘膀胱’에서는 天心은 私心を 싫어하고, 人心은 慾心を 싫어한다고 하였다. 天心과 人心은 東武가 설정한 天人관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존재하며, 행위를 만들어 나가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東武醫壽世保元』 「性命論」의 天人性命 구조 속에서 언급하는 天人의 설정과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보인다. 이때 天心과 人心은 각각 私心和 慾心으로써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放心과 逸心の 守己의 차원의 心慾이 극복되어야 함을 그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동무는 對衆의 차원의 心慾을 私心和 慾心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修養論

① 放心과 逸心の 극복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守己의 차원(身)에서 放心과 懶身に 대비하여 誠心和 敬身할 것을 말하여, 誠과 敬을 제시하고 있다. 誠과 敬은 『格致藁』 「反誠箴 巽箴」에서 제시하고 있는 身의 兩用으로서의 誠敬과 같은 맥락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放心과 逸心を 극복하는 개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格致藁』 「反誠箴 離箴下截」에서는 ‘心出而不入’한 경우를 ‘精之於理’하여서, ‘身汚而不隆’한 경우는 ‘一之於敬’하여 극복할 것을 제시하여, 각각 理와 敬을 제시하였다⁶⁾. 『遺稿抄』

에서는 守己의 차원에서의 심욕인 ‘欲之亟’을 극복하기 위해서 欲과 義에 한결같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東武遺稿』 「東武遺藁」 ‘勝胱’에서는 性의 이치는 放心을 경계하는데 있고, 命의 이치는 逸心を 경계하는 것에 있다고 하여 性命의 완성은 心身차원 또는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放心과 逸心の 경계로부터 시작됨을 밝히고 있다. 『濟衆新編』 「知行論」에서는 放心에 대해서는 ‘求其放心’하여 從容한 것을 誠으로, 逸心에 대해서는 ‘警其逸身’하여 敏強한 것을 敬으로 제시하여, 誠과 敬이 그 해결 덕목임을 밝히고 있다.

② 私心과 慾心の 극복

『格致藁』 「獨行篇」에서 私心の 극복은 守己의 차원(身차원)에서 ‘以誠心敬身爲身’할 것을, 慾心の 극복은 對衆의 차원(心차원)에서 ‘以治國平天下爲心’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遺稿抄』에서는 對衆의 차원에서의 심욕인 ‘利之鑿’을 극복하기 위해서 理와 利에 정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東武遺稿』 「東武遺藁」 ‘勝胱’에서는 天人性命의 초보적 구조 속에서 私放逸慾의 心慾을 분속시키고 있는데, 天心은 私心を 가지고는 얻어질 수 없고, 逸心이 없어야만 얻을 수 있으며, 人心은 慾心을 가지고는 얻어질 수 없고, 放心이 없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여, 對衆의 心慾의 극복은 守己의 心慾의 극복에서 시작됨을 제시하였다.

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사원구조 속에서의 心慾論

1) 天人性命 사원구조 및 문제제기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 사원구조 속에서 東武의 인간관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 ‘人皆自不爲堯舜’하는 특징을 가진 후천적이며 자율적인 요소는 知와 行으로 나누어 각각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에서 설명되어진다. 즉, 行其知하는 주체인 頤臆臍腹에는 知的(인식) 능력에 해당하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 등과 이를 가리는 驕矜伐

夸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고, 行其行하는 주체인 頭肩腰臀에는 行的(실천) 능력인 識見, 威儀, 材幹, 方略 등과 이를 가리는 奪侈懶竊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驕矜伐夸와 奪侈懶竊의 마음이 잘 통제되어야만 知的(인식) 능력이 발휘된 상태인 ‘닐리 통하게 됨(博通)’과 行的(실천) 능력이 발휘된 상태인 ‘홀로(바르게) 행함(獨行, 正行)’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얻어지고 달성되어지는 것을 각각 性과 命이라 하였다.

頤臆臍腹에 자재하고 있는 驕矜伐夸의 마음은 誣世之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私心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자연히 쉬지 않는 知(自有不息之知)’를 무너뜨려 ‘博通’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 頭肩腰臀에 자재하고 있는 奪侈懶竊의 마음은 罔民之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慾心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자연히 쉬지 않는 行(自有不息之行)’을 억눌러 ‘正行’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람의 頤臆臍腹의 邪心은 견줄만한 것이 없고, 사람의 頭肩腰臀의 怠心 또한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각각 孔子 제자들과 管叔蔡叔을 예로 들어 사람의 邪心和 怠心の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頤臆臍腹에 있으면서 籌策, 經綸, 行檢, 度量 등을 방해하는 요소로 驕矜伐夸를 제시하며 이를 邪心, 罔民之心, 私心 등으로 표현한다. 頭肩腰臀에 있으면서 識見, 威儀, 材幹, 方略 등을 방해하는 요소로 奪侈懶竊을 제시하며 이를 怠心, 誣世之心, 慾心 등으로 표현한다. 이들 마음은 결과적으로 ‘人皆可以爲堯舜’한 특징을 가진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요소인 好善과 惡惡의 마음을 가리는 요소로 작동하며, 이는 東武가 『格致藁』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 性理와 心慾의 대립구조로 설명하는 心性觀에 의거하여 본다면, 모두 心慾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東武는 앞의 고찰에서와 같이 心慾을 私放逸慾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그의 天人性命의 사원구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東醫壽世保元』이 형성되기 이전의 문헌에서부터 그가 시도해온 바이다. 이에 天人性命論의 최후의 견해인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내에서 그의 心慾論을 재조명하여 私放逸慾의 心慾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6) 여기서 理는 두 가지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格致藁』 「反誠箴 巽箴」의 양의적 心身에서 제시한 心의 兩用인 理와 利 중에 理를, 身의 兩用인 誠과 敬 중에 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天人性命 사원구조 속에서의 心慾論

私放逸慾의 心慾을 『格致藁』 등에서는 私心과 慾心の 對衆的 차원의 心慾과 放心과 逸心の 守己의 차원의 心慾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도에 입각하여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의 心慾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무가 견줄 바 없는 마음으로 제시한 頤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臀의 怠心은 私放逸慾의 心慾 중 일차적이며, 守己의 차원의 心慾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기 마음만 위하는 것으로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는 我我自爲心 而未免愚也 我之免愚 在我也)’이며, ‘자기 몸만을 위하는 것으로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는 것(我我自爲身 而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 在我也)’에 해당된다. 私放逸慾의 心慾 중에는 각각 放心과 逸心に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頤臆臍腹에 있는 驕矜伐夸의 私心과 頭肩腰臀에 있는 奪侈懶竊의 慾心은 이차적이며, 對衆의 차원의 心慾으로 사료된다. 이는 세상을 속이는 마음(罔民之心)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마음(誣世之心)이다. 私心은 ‘自有不息之知’를, 慾心은 ‘自有不息之行’를 억누르고 무너뜨리며, 籌策 등의 인식능력과 識見 등의 실천능력을 방해하여 결국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을 가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즉 개별적, 守己의 차원을 넘어서서, 天機를 인식하고 人事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대외적, 對衆의 차원의 心慾이라 할 수 있다³⁷⁾. 이는 私放逸慾의 心慾 중에서 각각 私心과 慾心に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는 私放逸慾의 心慾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放

37) 邪心과 怠心, 私心과 慾心を 모두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東武 人間觀에서 知行의 주체이며, 자율적인 입장을 가지는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이 그 心慾의 소재처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私心과 慾心은 ‘察天機’와 ‘行人事’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 각각 道心에 해당하는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라는 인간 보편의 마음을 가리는 것으로 논자는 파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天-私, 人-慾, 性-放, 命-逸이라는 『東武遺稿』 「東武遺藁」, ‘膀胱’에서의 같은 일반적인 배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心과 逸心に 해당하는 일차적, 守己의, 對內的 心慾인 邪心과 怠心이 있고, 私心과 慾心に 해당되는 이차적, 對衆的, 對外的 心慾인 私心과 慾心이 제시되고 있다. 驕矜伐夸의 마음과 奪侈懶竊은 이중에 특히 對衆的 차원의 심욕인 私心과 慾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心慾論과 修養論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는 修養論으로 知行論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存其心養其性’하고 ‘修其身立其命’하여야 堯舜과 같은 知行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것이 ‘博通’과 ‘獨行’의 단계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지고 달성되어지는 것이 ‘性’과 ‘命’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存其心’하고 ‘修其身’하는 것을 그 처음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를 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心慾論의 관점에서 본다면, ‘存其心’과 ‘修其身’은 일차적이고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邪心과 怠心, 바꿔 말하면 放心과 逸心を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格致藁 獨行篇』에서 제시한 誠心, 敬身の 과정이며, 『濟衆新編』 「知行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放蕩하는 心을 바로 잡는 ‘求其放心’과 偷逸하는 身을 바로 잡는 ‘警其逸身’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는 主宰之心에 대해 언급하면서 頤臆臍腹의 ‘誠하지 않는 바가 없음(無所不誠)’과 頭肩腰臀의 ‘敬하지 않는 바가 없음(無所不敬)’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여기서의 誠과 敬의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³⁸⁾.

이상의 ‘存其心’과 ‘修其身’의 과정을 통해 일차적인 心慾이 제어되고, 더 나아가 이차적이고 對衆的인 心慾인 驕矜伐夸의 私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이 제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頤臆臍腹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 등과 頭肩腰臀에 있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 등이 發用하게 되는 博通과 獨行(또는 正行)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각각 ‘性’과 ‘命’이 얻어지고

38)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17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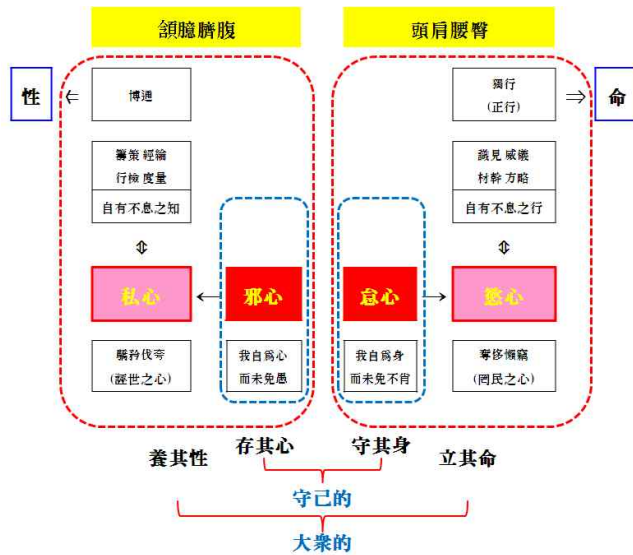


Fig. 7. The Overview of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and 'Theories on the Cultivation' i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性命論)』

달성되어지는데, 이를 ‘養其性’과 ‘立其命’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차적이고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邪心(放心)과 怠心(逸心)이 극복되어지고, 이어 이차적이고 對衆的인 차원의 驕矜伐夸의 私心과 奢侈懶竊의 慾心이 극복되어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Fig. 7)

한편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는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와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를 각각 ‘至性之德’과 ‘正命之道’라 하였다³⁹⁾. 이를 己物觀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보면, ‘我亦知善’과 ‘我必不行惡’은 일차적이고 守己의 차원의 心慾을 극복함으로써 가능하며, ‘好人之善’과 ‘惡人之惡’은 이차적이고 對衆的 차원의 心慾을 극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守己의 차원의 心慾(己 차원의 心慾)과 對衆的 차원의 心慾(物차원의 心慾)을 극복하여, 보편성과 전부성을 가지는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을 보존하고 확충하여 가는 과정이 東武가 제시하는 ‘성에 이르는 德(至性之德)’과 ‘命을 바르게 하는 道(正命之道)’라고 할 수 있겠다.

IV. 結 論

1. 일신의 不善함을 초래하고 智禮義仁의 性理를 가리는 요소인 私放逸慾의 心慾 중 私心과 慾心은 我者와 他者간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지는 事物차원의 心慾이며, 放心과 逸心은 我者 내에서 설정되어지는 心身차원의 心慾으로 각각 對衆的 차원의 心慾과 守己의 차원의 心慾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格致彙』, 『遺稿抄』, 『東武遺稿』 및 『濟衆新編』 등 東武의 인간관을 설명하고 있는 天人性命 사원구조의 초기 생각 속에는 私放逸慾의 心慾이 原因論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는 修養論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邪心과 怠心은 일차적, 守己的, 對內的 心慾으로 私放逸慾의 心慾 중 放心과 逸心에 해당되며, 驕矜伐夸와 奢侈懶竊은 二次的, 對衆的, 對外的 心慾인 私放逸慾의 心慾 중 私心과 慾心이다.
4. ‘存其心’과 ‘修其身’은 守己의 차원의 心慾인 邪心(放心)과 怠心(逸心)을 극복하는 과정이며, ‘養其性’과 ‘立其命’은 對衆的 心慾인 驕矜伐

3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34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夸의 邪心과 奪侈懶竊의 慾心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 '性'과 '命'을 달성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V. 參考文獻

1. Jang HJ, Koh BH, Song IB.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Dokhaenpuun and the Knowledge and Deed. J Sasang Constitut Med. 1991;3(1):23-34. (Korean)
2. Kim JW, Song IB, Koh BH. Consideration on Lee Je-ma's Dokhaenpyun. J Sasang Constitut Med. 1994; 6(1):1994. (Korean)
3. Yoon DY, Koh BH. The study on Bi-Bak-Tam-Ra'Ja in Dokhaenpyun.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 1996. (Korean)
4. Son SK, Kim DR.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Nature and the Emotion of Confucian and the Nature Qi and Emotion Qi of Lee Jae-Ma. J Sasang Constitut Med. 1996;8(2):11-40. (Korean)
5. Lee SK, Koh BH, Song IB. A Bibliographic study on Formation Proces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1998;10(1):41-54. (Korean)
6. Hwang MW, Lee SK, Koh BH, Song IB. A Study on Inclination of Mind and Nature & Emo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04; 16(2):17-31. (Korean)
7. Lee JH, Lee EJ, Koh BH. Reconsideration about the Dong-Mu's Theory of Nature and Emo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2):11-26. (Korean)
8. Lee JM. Gyukchigo. Hamhung:Duckhung publishing. 1940. (Chinese)
9.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서울:한미의학. 2010.
10. Lee JM. Donguisusebowon. 8nd rev. Seoul:Daesung publishing. 1998. (Chinese)